

“검찰 호남 엘리트 고사 우려”

검찰총장 인사 광주·전남 지역민 불만 팽배

청와대가 신임 검찰총장과 국제청장 인사에서 당초 예상을 깨고 호남권 인사를 배제함으로써 지역민들 사이에선 아쉬움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사에선 당초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던 호남 출신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함에 따라 일각에선 ‘호남인맥 청산’을 위한 인사라는 비난마저 쏟아지고 있다.

◇“MB정부 호남 홀대, 해도 너무 한다”=21일 청와대가 신임 검찰총장과 국제청장에 각각 천성관 서울지검장을 내정함에 따라 지역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법시험 22회인 천 지검장을 검찰총장에 내정

함에 따라 3명의 호남 출신 선임 간부들의 거취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광주지역 A 변호사는 “과거 정권 교체기에도 ‘대대적 쇄신 인사’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기본 틀’까지 바꾼 경우는 없었다”며 “특히 이번 인사의 경우 자칫 호남권 검찰 인맥의 대대적 퇴진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지역민들은 이번 인사에서 청와대가 ‘지역 안배’ 등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점에서 실망스런 기색이 역력하다.

A 변호사는 “호남 출신인 명동성(56·사시 20회) 법무부수원장급과 문

성우(53·사시 21회) 대검차장 등의 경우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더욱 크다”며 “검찰의 관례상 후임기수가 수장이 될 경우 선임기수들은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 내부의 ‘호남 인맥 고사’ 현상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호남 검사들 이전 누가 이끌어 주나”=실제 광주 출신인 문 차장의 경우 검찰총장 자리를 놓고 권재진(56·사시 20회) 서울고검장과 ‘2과전’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올 만큼 유력 후보로 꼽혀왔다. 임채진 전 총장 사임 이후 총장 업무를 대행해 온 문 차장은 수사는 물론, 검찰 인사

와 조직 등 행정 업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명 연수원장도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07년 말 대선 정국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연관됐던 ‘BBK 의혹’ 사건을 무난하게 처리하는 등 검찰 내부의 두터운 신망을 바탕으로 차기 총장후보로 꼽혀왔다.

전남 출신 검찰 간부 B씨는 “이번 인사에선 ‘지역 안배’와 ‘기수 관례’ 등이 모두 깨졌다는 점에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당분간 검찰 내부에서 광주·전남 인사들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검찰총수 3기수 점프 국제청 외부인사 수장

대대적 후속인사·조직 쇄신 예고

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신임 검찰총장 및 국제청장에 의외의 인물을 내정함에 따라 검찰과 국제청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4대 권력기관으로 불리는 검찰총장과 국제청장에 ‘공안통’으로 불리는 천 내정자와 ‘MB맨’으로 불리는 백 내정자 각각 발탁된 것은 향후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사시 22회 출신으로, 전임자인 임채진 전 검찰총장(19회)보다 무려 3기수나 아래다.

유력한 후임 후보로 거명되던 권재진 서울고검장과 명동성 법무부수원장 등 20기 2명을 제치고 검찰 수장에 올랐다는 점에서 파격 인사라는 평가다.

특히, 문성우 대검차장을 비롯해 김준규 대검고검장, 문효남 부산고검장 등 21기 5명도 여전히 현직에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추후 검찰 내부의 후속인사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백용호 국제청장 내정자의 기용은 전임 국제청장 3명이 모두 불명에 퇴진했다는 점에서 외부 인사를 투입, 내부 조직에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반영하듯 국제청 안팎에서는 백 위원의 발탁에 대해 국제청 쇄신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백 위원은 현재 장관급임에도 불구하고 차관급이 국제청장으로 자리를 옮겨 더욱 의외로 여겨졌으며, 이로 인해 공정거래위원장 후임 인선에 따른 ‘연쇄 인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모두 충청권 출신이 내정됐다는 부분이다.

당초 검찰총장의 경우 ‘코드 인사’ 등에 따라 영남권 인사가 기용되거나 ‘지역안배’ 차원에서 호남권 인사가 발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국제청장도 검찰총장 인사와 연계, 호남 출신이나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 강원 등의 지역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출신 지역보다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을 배치하는 ‘MB식 실용 인사’의 전형이라는 자평이다. /임동욱 기자 tuim@

검찰총장·국제청장 프로필

외유내강형 합리적 성품...대표적 공안통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온화하고 겸손한 성격에 합리적인 성품의 외유내강형이다. 꼼꼼하고 치밀하면서 균형 감각이 뛰어나 현안 분석 및 대처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이다.

1999년 대검 공안1과장과 2001년 서울지검 공안부장, 2002년 대검 공안기획관을 역임하는 등 지방 부장검사 승진 이후 거의 모든 보직이 공안계통일 정도로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작년 수원지검장 재직 시절 대표

적 공안사건인 ‘원정화 간첩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특별수사 분야 경험은 많지 않지만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이후 ‘용산참사’ 사건 등 주요 사건도 무난하게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인 김영주(51) 씨와 1남1녀.

▲충남 논산(52·사시22회) ▲경기 서울지검 공안부장 ▲수원·부산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1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울산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시장 시절 인연 ‘추대통령 경제 과외선생’

백용호 국제청장 내정자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과외선생’이라는 별칭이 따라다닌다. 실용주의적 성향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중 한 명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의 자문기구인 바른정책연구원을 이끌어오는 등 오래전부터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을 맺어왔다. 정부 출범 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3월부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시장의 규율을 위한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를 동시에 추진했다.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립대 대학원을 거쳐 이화여대 교수로 재직했으며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등을 거친 금융·자본시장의 전문가로 꼽힌다. ▲충남 보령(53) ▲중앙대 경제학과 ▲이화여대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 ▲공정거래위원장

나로호 1단 로켓 나로우주센터 육·해·공 운송 대작전

우리나라 첫 자력위성 발사체인 ‘나로호’(KSLV-1)의 1단 추진체가 지난 20일 오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했다. 러시아 화물기에 실려 지난 19일 김해공항에 도착한 나로호는 극비리에 1박2일간 육상과 해상 등을 거쳐 안전하게 옮겨졌다. 1 러시아 화물기에 실려 김해

공항에 도착. 2 트레일러에 실려 경찰차와 소방차 등의 호위를 받으며 부산신항으로 이동. 3 12시간의 이동 끝에 20일 오후 고흥 나로우주센터 부두에 도착한 추진체. 4 나로우주센터 내 조립동으로 옮겨진 모습.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부산일보 제공>



**비전있는 기업의
현장경영은 신선크!**

네오세는 1984년 설립된 이래로
한국을 대표하는 제조기업으로서
최고의 품질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www.neoce.com)

Neoce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신용보증기금 지정